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현황과 창조적 계승

박경화*

〈차 례〉

1. 문제제기
2.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생태
3. 문화생태 변천에 따른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발전 과정
4. 특정 문화생태에서 형성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5.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6.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계승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발전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100여 년의 변모를 거쳐 현재는 조선족 특유의 문화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화·세계화 추세와 함께 조선족의 문화생태계는 여러 가지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의 표상으로서 특정 지역이나 민족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또한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본고는 우선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정한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실천 활동 속에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이 어떤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논의함으로써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이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적 지향에 대해 짚어봄으로써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문화 생태, 보호, 계승

* 연변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1. 문제제기

오늘날 유네스코(UNESCO)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유형문화유산과 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으로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 건축물 위주의 유형문화유산을 보호하던 데로부터 국가와 민족,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으로 표상되는 무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내재적 가치에 새롭게 주목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관심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통과되면서 더욱 고조되었고,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은 새로운 화두로 올랐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은 재생의 문화적 요소로서 지역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소멸의 위험성이 크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기록하고 수집하는 작업은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지만 기록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고, 전승 활동이 부진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국제사회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지역 사회와 연결시키고,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민의 생활과 연결시킬지에 주목하고 있다.

본고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중국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은 조선족 고유의 민족적·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중국의 문화생태 환경 속에서 특유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생태는 전통시기와는 다른 현대적 변모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전통 문화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가져온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무형문

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현재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마을의 공동화(空洞化),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공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기회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구조기능주의의 총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생태학적 변화와 그것이 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고,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적 지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2.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생태

문화는 삶의 양식이자 정신적 사고방식이며 구체적으로는 예술작품이기도 하다.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 할 수 있다.¹⁾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문화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다. 문화가 다양한 만큼 문화유산 역시 매우 다양한데, 문화유산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 개념으로서의 ‘문화’로부터 출발하며, 인류의 미래 문화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자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문화양식을 가리킨다.²⁾ 문화유산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 변화를 불러왔다.

17세기의 데카르트는 물질계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범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사상은 근대 기계론 형성의 원천이 되었다. 뉴턴 역시 합리주의 정신과 물질 이원론 철학사상의 기초에서 고전 물리학의 기반을 다

1) 도종필, 『문화재 정책 개론』, 민속원, 2009, 20쪽.

2) 김만석, 『컨버전스 시대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북코리아, 2010, 20쪽.

졌다.³⁾ 그러나 세계를 기계적인 질서로 묶으려는 기계론적·환원주의적 세계관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과학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며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보는 생태학적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변화를 가져왔다. 역사적 원형과 전통이 강조되던 데로부터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전송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도 연관된다.

유네스코 협약 제2조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practice), 표상(representation), 표현(expression), 지식(knowledge), 기술(skill)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도구(instrument), 물품(object), 가공물(artefact), 문화공간(cultural space)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대대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의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과 역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재창조되고 이들에게 정체성과 연속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이 대를 이어 전승한 다양한 전통문화 표현형식과 관련된 물건과 장소를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소는 바로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공간은 무형문화유산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 간의 상호 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과 그것이 기저로 하고 있는 환경 간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무형문화유산을 논함에 있어 문화생태와의 관계가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문화생태란 인간의 문화가 의존하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⁴⁾

3) Fritjof Capra, 이성범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95, 33쪽.

4) 朱以青, 「文化生態保護與文化可持續發展: 兼論中國的非物質文化遺產保護」, 『山東大學學報(哲學社

서로 다른 문화생태는 서로 다른 문화 유형을 양산하면서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한다. 문화는 특정한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실천 활동 속에서 생겨나며, 그것이 놓인 다양한 환경과 더불어 완전한 문화생태계를 형성하여 인간과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생태의 중요한 구성 부분 중 하나이며, 무형문화유산의 존속은 문화생태와 불가분의 구조적 관계를 갖는다. 그 어떤 무형문화유산이던지 모두 특정 문화생태, 즉 자연환경과 문화가 융합된 특수한 장면 속에 존재한다.

문화는 국가의 위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문화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전통문화는 변하지 않는 고고학적인 유산이 아니라 생태환경과 상호의존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물론 전통문화가 지니는 고유한 역사성이나 민족성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화석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되고 자연스럽게 전해져 왔고, 현재는 보호하고 전승해야 하는 문화 요소로 변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고정불변의 전통문화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이며, 유기체적인 구조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생태 변천에 따른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발전 과정

무형문화유산을 논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배경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간과하는 것은 마치 꽃병 속에 갇힌 꽃이 생존을 위한 토양을 잃는 것과도 같다.⁵⁾ 따라서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의 이주와 중국에서의 정착과정, 사회문화적 환경이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7차 전국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총인구는 1,702,479명으로

會科學版)』2, 2012, 156쪽.

5) 龐國慶·朱偉, 『文化人類學與非物質文化遺產』,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8, 104쪽.

집계되었다. 이는 중국 전체 민족 중 1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인구 분포를 볼 때 중국의 34개 성급 행정구역에 분포되어 있다.⁶⁾ 100여 년의 변천 과정을 거쳐 중국 조선족은 국경을 넘는 이주민 집단에서 점차 중화민족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고,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도 중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조선족의 이주와 정착, 발전 과정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사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족의 월경과 이주의 역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족과 조선족 문화의 변천 및 발전을 추적해야 한다.

중국과 한반도 변경에 위치한 주민들의 이동은 예로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조선족 선조들이 중국의 동북으로 대거 이주하여 정착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동북 지역은 만주족이 흥기한 곳이자 청나라 왕조의 발상지로서 ‘용흥의 땅(龍興之地)’으로 불렸고, 강희시대부터 봉쇄 정책이 시행되어 동북 지역의 인구 이동과 개발 활동은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이때 후기에 접어든 조선 왕조는 ‘삼정문란’⁷⁾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혼란을 양산했고, 민중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점점 가중되는 생활의 압박과 계속되는 자연 재해로 인해 갈 곳 없는 조선 북부의 일부 민중들이 봉쇄와 쇄국령에도 불구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경을 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월경민들이 개간하고 정착함에 따라 동북 경내에는 자연스럽게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동북 지역은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정착지가 되었고,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해 중요한 지리적 공간을 제공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문화적 플랫폼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중국 동북 지역에 정착해 살던 조선족 선조들은 대부분 농사일에만 종사할 수 있는 가난한 농민이었다. 낮은 땅에서 황무지를 개간해 힘들게 농사를 짓던 조선 이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노래와 춤으로 노동의 피로를 해소하고 쉼과 괴리와 북으로 마음속의 고초와 그리움을 표현했다. 이로부터 조선족은 제천

6) 2020년 중국에서 진행된 제7차 인구조사 자료에 근거해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7) 삼정의 문란은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 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되어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데, 삼정문란은 조선 후기의 혼란한 사회현상을 반영한다.

의식을 치르고, 복을 기원하며, 추수를 축복하기 위해 악기 연주와 가무공연을 결합한 민속예술 형식인 ‘농악무’를 삶의 터전으로 끌어오게 되었다. 농악무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는데, 문헌 기록에 따르면 조선 민족의 선조들은 농업 생산이나 제천의식으로부터 지신밟기, 논두렁 세기 등 농악무의 초기 형태를 창조했다고 전해진다. 조상 대대로 전해지면서 그 내용과 형식은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거쳤고, 농악무는 마침내 지역성과 민속성, 독특한 심미적 특성을 겸비한 민속 무용으로 발전하였다. 농악무는 ‘천지만물은 하나’라는 조선 민족의 전통적인 생태윤리 도덕관을 집약적으로 체현한 춤이라 할 수 있다.

위만주국(偽滿洲國) 시기에 이르러 가속화된 집단 이주로 조선족 이주민의 분포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두만강과 압록강 북안에서 동북3성 전역으로 확대되었다.⁸⁾ 이 시기 조선족의 ‘집단 이주’는 기존의 ‘토종’ 문화를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이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선족 이주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문화 변천과 문화 적응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한 인구 이동 모델은 ‘문화 이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인구 이동과 함께 기존의 문화 보유자와 문화 내용도 정착지로 흡수되게 하였다. 이는 조선족 이주민의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에 유리한 공간적 요건과 인문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농악무가 성행하는 안도현의 신둔(新屯)촌, 왕청현의 합마당(蛤蟆塘)촌과 영벽(影壁)촌 등은 모두 이 시기에 이주한 곳이다. 이 시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일제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고, 일제의 침략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의 전통과 민속을 숙청 대상으로 삼았지만, 특수한 시기에는 통치를 위해 농악을 장려하기도 했다. 조선족은 집단적으로 일할 때 팽과리를 치고 복을 두드리면서 기세를 올리고 사기를 북돋아 줬기 때문이다.⁹⁾ 이처럼 사기를 북돋는 것은 결국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조선족의 농악 놀이는 점차 규모가 커지고 마을 밖으로 확장되었으며, 농악문화로 대표되는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이 중

8) 孫春日, 『中國朝鮮族移民史』, 北京:中華書局, 2009, 532쪽.

9) 千壽山, 『中國朝鮮族農樂舞』, 北京:民族出版社, 2017, 159쪽.

국의 동북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동북해방, 토지개혁, 인민민주정권의 수립,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시는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 발전에 안정적인 사회 환경, 우수한 물질적 토대와 견고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여 더욱 특색 있고 다원화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특히 문예를 번영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겠다는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이른바 ‘쌍백방침’에 따라 각급 문화사업 부서는 조선족 문화작품의 창작을 추진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발굴과 정리에 힘썼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성립 초기부터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연변가무단의 음악가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이들을 전국의 여러 조선족 마을에 파견하여 민간문학, 민간무용, 민간예술 등 문화유산을 발굴·수집·정리하는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김문자, 조종주, 우재강, 박정렬, 이금덕, 신옥화 등 민간예인들과 이임룡(통소), 이병렬(장단) 등 기악 연주자들을 발굴하였다.¹⁰⁾

경제회복, 한국전쟁, ‘삼반오반(三反五反)운동’¹¹⁾ 등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조선족의 전통문화예술도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따라 민중을 고무하고 추동하여 용감히 전진하게 하는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로부터 농후한 시대적 색채를 띤 다양한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대적 요구와 민중의 염원을 반영한 작품이 부단히 등장했는데, 여러 문화단체가 결성되고 문화 활동이 다원화되면서 농악무가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점차 하나의 무대예술로 자리를 잡아 갔다. 조득현이 창작한 ‘농악무’ 작품이 바로 그 예이다. 동시에 일부 전통예술 작품과 장르도 복원되고 발전되었는데, ‘노부부대창’이나 ‘농악장단’은 신중국 건국 초기에 발굴되고 정리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신중국 건국 초기 조선족의 민간예술 발굴은 주로 민간음악, 민간

10) 宋旭日·朴今海,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역사문화연구』 5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4.

11) ‘삼반오반(三反五反)운동’은 삼반운동과 오반운동을 합쳐서 일컫는 용어로, 여기에서 ‘삼반’은 국가 기관과 기업에서의 반탐오, 반낭비, 반관료주의를 지칭하며, ‘오반’은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탈세, 국유 재산의 절취, 일을 대충 처리하는 행위, 국가 경제정보 누설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무용, 민간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발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민속 문화, 세시풍속과 같은 다른 유형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거나 발굴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중국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은 더욱 깊은 곤경에 빠졌고, 이를 둘러싼 문화생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진입했다. 이에 대해 풍기재(馮驥才)는 “문화유산에 있어 ‘문화혁’은 역사상 가장 큰 파괴이기도 하다. 그것은 문화유산을 직접 ‘혁명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¹²⁾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조선족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례풍속문화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농경생활에서 풍작을 기원하는 세시풍속, 명절, 결혼, 장례 및 무격, 민간신앙 등은 모두 ‘봉건문화의 잔재’, ‘봉건 미신’으로 간주되어 배척되고 금지되었다. 많은 문화유산이 잠깐 등장했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갔고, 심지어 소멸되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혁명선전단이 결성되면서 조선족의 노래와 춤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일부 예술인들은 전통 농악무를 과감히 각색하기도 하였다. 비록 창작 과정에 다양한 시비가 있었지만 1975년 중국의 일부 성, 시, 자치구 문예경연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조선족 농악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었다.¹³⁾

2001년 ‘곤극(昆曲)’이 유네스코 제1차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대표작품 목록에 성공적으로 등재되면서 중국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다 중시하기 시작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중국인의 삶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 초에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보호영도소조’를 설립하고 사회·역사·민속·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를 적극적으로 초빙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추진하였다. 연변주에서는 200만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여 무형문화유산 조사·교육·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12) 馮驥才, 「文化遺產日的意義」, 『光明日報』, 2006년 6월 15일.

13) 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 『延邊文化誌』, 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出版, 2012, 179~180쪽.

전개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6년 연말에만 10개 종목을 아우르는 무형문화유산 172건을 수집·정리하였는데, 상모춤, 그네, 널뛰기 등이 국가급 1호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조선족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은 세계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1개(중국 조선족 농악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24개, 성급 무형문화유산에 72개가 선정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민간문학, 전통음악, 전통무용, 곡예, 전통유희잡기, 전통기예, 민속풍속, 전통의약 등 무형문화유산의 모든 범주가 포함된다. 그중 연변주에 속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이 가장 많고 관련 종목도 가장 광범위하다. 무형문화유산을 신청한 지역의 지역적 특징으로부터 조선족의 집거지인 민족자치지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는 데 있어 문화생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4. 특정 문화생태에서 형성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조선족은 정치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한 이주민족으로 한반도와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타민족과 교류하고 융합하는 과정에 중국의 사회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재창조하였다. 이에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농경문화, 정착문화, 이중문화의 특징, 그리고 열정적이고 밝은 인문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경제 발전은 본질적으로 문화 과정이기도 하다.¹⁴⁾ 모든 민족의 문화는 생활양식,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지리 및 사회적 공간을 떠날 수 없다. 월경 민족으로서 중국 조선족 선조들의 구성 주체는 생계를 위해 강을 건너 황무

14) 余秋雨, 「定義文化: 精神價值, 生活方式和集體人格」, 『濟南日報』, 2013년 4월 23일.

지를 개간하고 개척해야 했던 가난한 농민들이다. 이로 인해 농경문화는 중국 조선족 문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조선족 선조들은 땅을 개간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농경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발전시켰다. 특정 문화생태 환경 속에서 농사제례, 세시풍속, 민간신앙, 가무풍속 등은 조선족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점차 뿌리를 내렸고, 조선족의 민족적 특성을 보여주는 문화를 형성하였다.

농악무를 비롯한 많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은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속류 무형문화유산 종목은 모두 농경적 색채가 짙다. 달집태우기나 지신밟기는 땅을 생명의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 민족 조상들의 토지신에 대한 경배와 제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연주·노래·무용·연설·제사 등 행사를 통해 토지신을 위로하고, 농가의 화근을 없애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기를 기원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산천제(山泉祭)는 농업민족의 수원에 대한 중시와 갈망을 담고 있다. 음력 7월 15일 백종절(百種節)에서 유래한 ‘농부절’은 농번기가 끝난 후 조선족 농부들이 모여 농부의 신 백종을 기리는 날로서 농민들을 위한 명절이다.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진 농업에 대한 집착과 추구는 조선족의 무형문화에 농경문화의 요소를 강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오늘날 조선족의 농업과 농촌은 조선족의 발전 과정에 기존의 경제적 특징과 문화적 요인을 가장 완전하게 보존하고 계승한 부분이기도 하다.

조선족 선조들이 중국 동북으로 이주하면서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을 중심으로 촌락을 사회생활 단위로 하는 집거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가장 초기 형태의 조선족 취락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조선족의 문화적 동질성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중국의 전통 농촌사회는 종족을 기본 사회구조로 하고 있는데, 종족문화는 봉건전제의 내외적 사회현상이기도 하다. 정치적·경제적 기반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현재에도 종족문화는 중국의 많은 농촌지역에서 여전히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¹⁵⁾ 이주로 모여든 조선족들은 전통적인 농업생산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경제공동체의 기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회적 유대를

활성화하고, 촌락의 화합과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경제문화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제문화공동체를 통해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생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주와 정착 과정에 겪는 불편함을 함께 극복하고 민족 문화를 유대로 집단 의식을 응집시키고 정체성을 강화했다. ‘농악무’는 바로 이러한 조선족 취락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춤으로서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의 춤, 이른바 ‘군거군무(群居群舞)’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집단농경, 평안 기원, 명절 축하와 같은 대중적인 문화 활동과 연관이 있다.

조선족은 국경을 넘어 이주해 온 민족으로 그 문화는 조선 민족의 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중국 각 민족과의 교류 속에서 중국 특색의 조선족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족 문화의 특성을 둘러싸고 일부 학자들은 조선족의 ‘국민성’을 근거로 순수한 중국 조선족 문화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조선족의 디아스포라(diaspora) 성격에 근거해 조선족 문화가 가지는 이중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일부 학자들은 ‘주변문화론’의 관점을 제기하기도 한다.¹⁵⁾ 어떤 주장이든 조선족 문화와 한반도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는 조선족 문화와 분리될 수 없는 ‘뿌리’이다. 물론 이러한 ‘뿌리’ 의식은 조선족이 중국에서의 생활 경험과 더불어 한반도와 차이를 가지는 조선족 특유의 민족적 체험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리랑’은 한반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족 이주민에 의해 중국에 들어온 후 중국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도 했다. 이는 조선 민족의 특색뿐만 아니라 중국적 특색도 지닌 중국 ‘조선족 아리랑’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항일전쟁시기 조선족은 항일독립군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환락아리랑(歡樂阿里郎)>을 창작하였고, 해방 후에는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새아리랑(新阿里郎)>(채택룡 작사, 허세록 작곡)이 전해졌으며, 문화대혁명 이후에는 <장백새아리랑(長白新阿里郎)>, <화개아리랑

15) 陶勤, 「鄉土社會與宗族文化: 淺談中國農村宗族文化的鄉土根源」, 『文化產業研究』 3, 2016, 29쪽.

16) 정희숙, 「조선족 문화변동과 문화정체성」, 『역사문화연구』 35,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花開阿里郎)>(채택룡 작사, 김남호 작곡) 등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정선 아리랑연구소 진용선 소장은 “아리랑은 꽃씨와 같은 것”이며, “꽃씨가 옷깃에 묻어 연변 땅에 뿌려지면, 연변 지형에 맞는 꽃이 피고, 러시아에 떨어지면 러시아 지형에 맞는 꽃이 피듯이, 꽃씨는 같지만 꽃은 지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족 아리랑은 어디까지나 조선족 아리랑이고, 한국의 아리랑과는 역사적·음악적 정서가 다르다는 관점을 밝히기도 했다.¹⁷⁾ 이처럼 조선족 아리랑은 전통 아리랑의 음악적 선율을 바탕으로 시대적 특징과 조선족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결합한 또 다른 형식의 아리랑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족은 열정적이고 명랑한 민족으로 국가급·성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서 가무곡예와 관련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진다.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국가급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에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곡예 종목은 9개로 전체의 47.4%를 차지했고, 성급(연변지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에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곡예 종목은 26개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이는 조선족들의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조선족들은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며, 노래와 춤에 능하다. 논밭이든 일상생활이든 설날과 같은 명절이나 가정 모임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표주박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풍경이다. 가무류 무형유산 중 많은 부분이 즉흥적이면서도 활달하고, 명랑하고 낙천적인 조선족의 성격 특징과 심미적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에서 무용으로는 농악무가 유일하게 세계적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것도 농악무에 담긴 조선족의 낙천적이고 개방적인 민족적 기질과 갈라놓을 수 없다.

17) 해당 내용은 정선아리랑연구소 진용선 소장의 인터뷰 자료에서 발췌 한 것이다. 김경록, 「아리랑은 꽃씨와 같은 것」, 『동포세계신문』 제298호, 2013년 8월 13일.

5.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20세기 이후 세계화와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심화됨에 따라 자연계의 생태는 부단히 파괴되면서 인류의 지속적인 개발과 개척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민족이 수천 년에 걸쳐 자신의 생존과 생활환경에 알맞게 수립해 온 문화적 전통도 파괴되거나 강제로 조정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관념은 생물권 내의 생물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으며, 서구 문화 중심적 사유는 문화권 내의 문화 종류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다.¹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창조적 계승이 중요한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밝혔듯이 무형문화유산의 자발적 전수와 전통적인 방식을 통한 전수는 현대사회 환경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생태환경에 조화되고 상호의존하면서 창조적인 계승을 도모해야 한다. 창조적 계승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에 있어 당면한 다음의 과제들과도 연관된다.

2004년 중국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한 이래 모든 민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은 많은 관심과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소수민족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생태의 변화와 함께 일련의 문화 발전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이 당면한 위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추상적인 문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 위기,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조선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변주정부는 국가의 관련 법규와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2015년에 <조선족비물질문화유산보호조례>를 제정하고 통과시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대부분은 정책 지침 또는 원칙적인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입법 수준이 높지 않고, 구속력이 약하고,

18) 方李莉, 「文化生態失衡問題的提出」,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 2001, 105쪽.

내용이 불완전하고, 운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관련 법률 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의 활태성(活態性), 다양성, 재생불가능성의 특성을 충분히 체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보호하는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회동’, ‘격려’, ‘응당’, ‘지지’ 등과 같이 구속력과 운용성이 떨어지는 용어들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사업은 인위성, 임의성, 단기성과 같은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이익 공유와 관련된 <조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 개발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많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승자나 보유자에게 상응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자의적이고 무질서한 상업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 분배의 불균등 상황은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영역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상의 법률 규제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조선족 사회의 변화 역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전수되기보다 특정 마을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 즉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전통적 공동체는 해체의 위기에 놓였다. 무형문화유산은 민간문화에 속하고, 대부분 광활한 농촌의 생존과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중요한 매개체이다.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주로 가족, 마을, 지역사회와 같은 기초 환경에 의존하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은 구성원의 생산 활동 방식과 밀접히 연관된다. 전통적인 생산 활동 방식이 변화를 겪으면서 농촌의 전통문화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무형문화유산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농민과 토지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짐으로써 농경문화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토지집단소유제를 시행한 이후, 농촌의 사회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농지권리, 농업경영제도, 농업발전방식, 농

촌의 진화, 도시와 농촌의 관계 등 각 방면에서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는 ‘향토 중국’과 다른 ‘성향(城鄉) 중국’의 도래를 상징한다.¹⁹⁾ ‘성향 중국’이 도래하면서 농경생활을 토대로 하는 많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과 보호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실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선족의 ‘벗짚 엮기’는 2020년 길림성의 성급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오늘날 벗짚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무형문화유산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다른 한편으로 농촌의 공동화(空洞化)는 농촌 문화 활동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한·중 수교에 따른 조선족의 해외 노무 열풍으로 조선족 전통 마을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농촌이 위축되고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길림성 문예연합회 부주석 조보명(曹寶明)은 “조선족의 농악무를 예로 들어볼 때, 농악무는 하나의 공연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생활의 의의를 담고 있다. 농악무가 생기 넘치고 활기찬 황금잉어라면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풍속과 축제는 이 ‘황금잉어’가 의존하는 물이다.”²⁰⁾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토지집단소유제가 시행된 이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던 종합적인 문화·예술·체육 활동이 점차 사람들의 생활과 멀어지고 있으며, 마을을 단위로 하는 집단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조선족 사회는 공동체로서의 구심력이 점점 약화되는 생태환경에 놓여있다.

이와 함께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전승자가 부재하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인간이라는 주체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상태’, 즉 ‘활태(活態)’의 특성을 가진다. 어떤 무형문화유산이든 인간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물체나 자료의 수집·정리·보존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에 대한 보호도 요구한다. 현재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무형문화유산 전승이 심

19) 劉守英, 「城鄉中國正在取代‘鄉土中國’: 兼析‘農二代’的新特征」, 『北京日報』, 2019년 8월 26일.

20) 劉文波, 「朝鮮族非遺館開館 保護賴以生存的文化土壤」, 『人民日報』, 2010년 9월 13일.

각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고, 계승할 후계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후 농민과 토지의 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농민들이 땅을 떠나기 시작했다. 조선족은 월경 민족으로서 국외에는 같은 민족을 주체로 하는 한국과 조선이 있다.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총 183만 명인데, 그중 70만 명 이상이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체류하고 있다. 산둥, 북경, 상해, 광주 등 중국 내 대도시와 해외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30~40여만 명에 달한다. 이로부터 연변과 동북3성 전통 집거지역에 남아 있는 조선족 인구가 매우 적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농촌 학교의 폐교는 민족문화가 전승되는 시슬이 끊어지게 하고 있다. 조선족은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인데, 조선족의 교육열은 민족교육의 중심이 점차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통합(城鄉統籌)’, ‘일체발전(一體發展)’ 등 표준화된 학교운영 지침에 따라 균질적 발전 과정에 진입하면서 농촌학교는 점차 폐허가 되었고 민족학교의 민족문화 전승의 기능도 점차 퇴색하였다. 비록 도시의 많은 학교가 민족문화를 중시하고, 민족문화를 둘러싼 특색 있는 발전 방향을 탐구하고 창조하며, 민족문화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재를 편찬하고 있지만 형식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학교와 민족문화를 양성하는 ‘향토 장면’이 서로 분리되어 민족과 떨어진 ‘외 판섬’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은 자신의 민족 문화와 농촌생활의 ‘부적응자’로 되어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와 과제들을 안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는 그것을 보유한 문화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함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와 개선이 필요하다.

1)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보완

우선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보다 구체화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입법보호는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보장이 되어야 한다. 연변주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률 건설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관철 및 실행 업무를 진행하여 보호임무와 책임을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 조례에 대한 건설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확립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면적이고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생계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유산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일상생활에 물질적 보장을 제공하여 전승자가 문화유산의 계승 및 홍보에 충분한 정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무질서한 상업화가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무형문화유산 전승자가 상업 기업의 수익 창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무형문화유산 보유 지역의 정체성 강화

앞서 밝혔듯이 현재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공동체 구심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과 지역의 관계에 대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반드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가치 또한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실현된다. 공동체의 성격은 동일한 유대관계, 정서적 동일성, 집단의 가치 등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는 지리적 공간이라는 범주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상징적 대상에 대한 동일시, 특정 경제 체계, 언

어권역, 유사 문화권역, 특정 종교집단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²¹⁾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이러한 공동체의 성격과 밀접히 연관된다. 일례로 농악무는 민속예술인 동시에 연변지역의 생활방식, 사유방식, 감정, 세계관을 담고 있으며, 조선족 특유의 문화적 산물로서 민족적·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정은 전승자의 지혜, 기예, 창조력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강한 유대감을 포함한다. 한 세대에서 한 세대를 거치면서 겹겹이 쌓여지는 정서와 유대감, 공동체 의식 속에서 문화유산의 전승성은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이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출현과 발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그들이 창조한 조선족 문화가 조선족의 일상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든 농촌이든 문화의 매개체인 민족이나 그 사이에 있는 농민을 떠나서는 보호하기가 어렵다.²²⁾ 따라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무형문화유산과 지역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의 문제를 부단히 고민해야 한다. 문화가 공연 무대에서 민중의 생활로 회귀하고, ‘문화 정착’, ‘향토 회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마을의 공동화’와 같은 문화생태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민중으로의 회귀, 향토로의 회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 보유 지역과 지역민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보호와 전승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경제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만 보다 적극적인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지역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다.

21)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1, 22~27쪽.

22) 張有春, 「文化生存與鄉村發展: 一種生命觀的解讀」, 『北方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2017, 96쪽.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교실에 도입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어린이로부터’ 시작되게 하고,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이 겪고 있는 ‘보릿고개’, 전승자 부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고정적 실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담긴 전통, 역사성, 민족성과 그것이 내포하는 가치를 부단히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주체는 부단히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적응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문화전달과 보존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들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전승자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3)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유통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과 지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경제적 수혜에 대해 체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유통은 지역의 경제적 수혜와 밀접히 연관되는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인문예술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무형문화콘텐츠가 지역에 충분히 자리 잡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여러 주체 간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무형문화유산콘텐츠 개발과 유통은 전통성이나 역사성의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에 대한 부단한 고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창조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현대 문화 향유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를 부단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의 문화브랜드 건설에도 힘써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콘텐츠와 함께 지역 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만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고 이를 둘러싼 경제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

동시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유통은 경제시장 규칙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시지지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시장 규칙과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여 문화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4) 무형문화유산 보유 지역의 생태환경 보호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에 대한 생태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화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함에 있어 문화생태를 기반으로 한 지역 전반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다. 현재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이 의존하고 있는 농경문화와 이와 관련된 자연환경 및 사회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보존할 가치가 큰 문화 생태환경이 많다. 예를 들어 두만강 북안 700리 연안 지역은 조선족의 원생태를 엿볼 수 있는 밀집지역이며, 많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의민족의 역사와 기억이 담겨 있다.²³⁾ 따라서 한국, 일본 등 유교문화권 국가의 문화생태 조성 경험과 교훈을 보다 많이 배우고,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 여건에 따라 ‘조선족문화생태보호구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보호 정책을 도입하여 무형문화유산이 의존하고 있는 자연 생태와 인문 환경을 함께 보호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해체되거나 파편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맺음말

오랜 기간에 걸쳐 유지된 문화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결국 인류문화의 다원성과 다양성이 위협받기 마련이고, 인류문화는 지속적인 딜레마에 빠지

23) 朴京花·朴今海, 「生活化」: 朝鲜族非遗保护与可持续发展路径研究, 『北方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 2019, 93쪽.

게 된다. 따라서 문화생태의 총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여러 민족문화의 공생과 융합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가치와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조선족 선조들이 중국 동북으로 이주한 이래, 세계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생태는 끊임없이 변화였으며,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일련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의식을 가져야 하며, 무형문화유산이 의존하고 있는 문화생태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 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문화생태의 관점에 두고, 문화 요소와 문화생태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보호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적 근간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기초에서 현대적 요소와의 유기적 통합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대의 사회생활과 민족 전통문화가 서로 결합될 수 있는 발전공간을 모색하고, 전통과 현대의 변용과 융합에 이바지하는 문화생태를 조성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동시대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새로운 문화생태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1.
- 김경록, 「아리랑은 꽃씨와 같은 것」, 『동포세계신문』 제298호, 2013년 8월 13일.
- 김만석, 『컨버전스 시대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전략』, 북코리아, 2010.
- 도중필, 『문화재 정책 개론』, 민속원, 2009.
- 송옥일·박금해, 「연변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역사문화연구』 51,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4.
- 정희숙, 「조선족 문화변동과 문화정체성」, 『역사문화연구』 35,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 方李莉, 「文化生態失衡問題的提出」,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1(03).
- 馮驥才, 「文化遺產日的意義」, 『光明日報』, 2006년 6월15일.
- 劉守英, 「城鄉中國正在取代鄉土中國:兼析農二代的新特征」, 『北京日報』, 2019년 8월 26일.
- 劉文波, 「朝鮮族非遺館開館 保護賴以生存的文化土壤」, 『人民日報』, 2010년 9월 13일.
- 麻國慶·朱偉, 『文化人類學與非物質文化遺產』,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8.
- 朴京花·朴今海, 「生活化:朝鮮族非遺保護與可持續發展路徑研究」, 『北方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9(3).
- 千壽山, 『中國朝鮮族農樂舞』, 北京:民族出版社, 2017.
- 孫春日, 『中國朝鮮族移民史』, 北京:中華書局, 2009.
- 陶勤, 「鄉土社會與宗族文化:淺談中國農村宗族文化的鄉土根源」, 『文化產業研究』, 2016(03).
- 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 『延邊文化誌』, 延邊朝鮮族自治州文化局出版, 2012.
- 余秋雨, 「定義文化:精神價值,生活方式和集體人格」, 『濟南日報』, 2013년 4월 23일
- 張有春, 「文化生存與鄉村發展:一種生命觀的解讀」, 『北方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4).
- 朱以青, 「文化生態保護與文化可持續發展:兼論中國的非物質文化遺產保護」,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2(02).
- Fritjof Capra, 이성범 역,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범양사, 1995.

文化生态视野下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的传承现状 与创新发展研究

Piao jinghua*

伴随现代化和全球化的日趋深化, 各民族文化生态发生了不同程度的变迁, 非物质文化遗产的生存, 保护与传承受到了前所未有的外部要素影响. 文化生态变迁下的非物质文化遗产保护与传承面临何种困境, 何以营造出有利于非物质文化遗产可持续发展的文化生态等正成为当今各界热衷探讨的重要议题. 基于此, 本文纳入文化生态的视野, 关注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与传承. 在梳理文化生态变迁历程中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发展走向的基础上, 归纳特定文化生态中形成的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基本特征. 并通过分析其保护传承面临的困境, 就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的活态传承展开思考讨论. 以期为民族文化遗产的保护与传承提供学理性启迪.

[关键词] 朝鲜族非物质文化遗产, 朝鲜族, 文化生态, 保护, 传承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4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26일

*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Yanbian University